

김동관 “선박 동력체계 전환해야”

〈한화그룹 부회장〉

글로벌 해운산업 탈탄소화 이끈다

다보스포럼 앞두고 기고문 게재
ESS 등 청정에너지 솔루션 결합
“넷제로 도달, 공공·민간 협력 필수”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암모니아 가스터빈을 적용한 무탄소 선박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청정에너지 솔루션을 결합해 해운 산업 탈탄소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15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56회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를 앞두고 포럼 공식 웹사이트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탄소 배출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단기적으로는 선박 탄소포집 등 과도기적 대응이 불가피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선박 동력체계 자체를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200년 넘게 화석연료에 의존해 온 해운 산업이 중대한 전환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국제해사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지난 2024년 다보스포럼 연차총회 세션 ‘세계 최초 탈화석연료 선박’에서 한화의 해양 탈탄소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한화그룹

기구(IMO)의 2050년 넷제로(Net Zero) 목표와 유럽연합(EU)의 탄소 배출 규제 강화로, 2027년 이후에는 해운사들이 배출하는 탄소 전량에 대해 배출권을 확보해야 하는 구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부회장은 한화그룹이 조선과 에너지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운 산업 탈탄소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화오션은 암모니아 가스터빈과 같은 혁신기술을 적용한 무탄소 선박 개발을 추진 중”이라며 “점단 ESS 및 청정에너지 솔루션을 해양 인프라 전반에 적용해 선박과 항만이 함께 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 항만 당국과 협력해 청정 에너지를 활용한 ESS와 선박 충전 설비를 제공하는 시범 사업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선도적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선제적으로 적용한 기업과 기관들이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며 말했다. 또 “넷제로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산업적 변화에는 공공·민간 협력이 필수적 요소”라며 긴밀한 민관 협력이 뒷받침돼야만 상용화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LS, 자회사 IPO·해외 공장증설 등 밸류업 박차

이달 에식스솔루션즈 2차 기업설명회
LS전선, 멕시코 버스덕트 설비 확충

LS는 15일 에식스솔루션즈 기업공개(IPO)와 관련해 일반 공모 청약과 더불어 (주)LS 주주를 대상으로 별도의 주식배정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구조가 도입되면 (주)LS 주주들은 높은 경쟁률의 일반 공모 청약에 참여하지 않고도 에식스솔루션즈 공모주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전력 슈퍼사이클을 맞아 급성장이 예상되는 에식스솔루션즈의 투자 성과를 모회사 주주와 공유하겠다는 취지다.

LS 관계자는 “그간 자회사 상장 과정에서 자회사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모회사 주주가 이를 체감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제한적이었다”며 “이번에 검토 중인 방안은 LS와 에식스솔루션즈 모두의 주주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모회사 주주들이 자회사가 상장하더라도 IPO 일반 공모를 통해서만 참여할 수 있어 기회와 이익이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구조였지



LSCMX 조감도.

/LS전선

만, LS는 이러한 관행에서 벗어나 모회사 주주가 IPO 예정 자회사의 지분 취득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LS는 이달 중 2차 기업설명회를 열고 해당 청약방식이 확정될 경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배당 정책과 밸류업 전략 등 추가적인 주주 환원책도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LS전선은 이날 멕시코 중부 케레타로주에 위치한 생산법인 LSCMX에 약 2300억원을 투입해 전력 인프라 및 모빌리티 부품 통합 생산 기지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LS전선은 북미 AI 데이터센터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버스덕트 설비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생산 능력을 극대화함으로써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인프라 확충 수요에 최적화한 공급 체계를 갖춘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자동차용 전선 생산라인을 신규 구축해 모빌리티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 내연기관용부터 전기차(EV)용 고전압 전선까지 아우르는 풀 라인업을 갖춰 북미 완성차 업체들의 부품 현지화 요구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원관희 기자

삼성전자, 차세대 데시칸트 건조기 연구

美 에너지부 공식 지원과제 선정

삼성전자의 차세대 의류 건조 기술 연구가 미국 ‘에너지부(DOE)’의 공식 지원 과제로 선정됐다.

삼성전자는 높은 에너지 효율과 강력한 건조 성능을 모두 갖춘 차세대 의류 건조기 개발을 위한 ‘열회수 시스템’이 적용된 차세대 데시칸트 건조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연구를 위해 미국 최대 국립 연구소인 미국 ‘오크리지 국립 연구소(ORNL)’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화학 공학부와 협업한다.

이 과제는 고효율 제습 소재인 ‘데시칸트’를 의류 건조기에 적용해 건조 성능은 유지하면서 에너지 사용량을 크게 절감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건조 시 사용되는 전기 사용량을 ‘벤

트형(Vent, 열풍배기식 건조) 건조기’ 대비 35% 수준까지 절감하면서도 동등 수준의 건조 성능을 달성하는 게 목표다.

삼성전자와 오크리지 연구소,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은 향후 2년간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120만달러를 지원받고, 120만달러를 추가 분담해 총 240만달러의 예산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건조 솔루션 연구 결과를 향후 건조기 및 일체형 세탁건조기 등 다양한 제품군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아우디코리아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

“韓 시장 중요… A6 등 핵심모델 대거 투입”

네트워크 재정비 등 고객경험 강화

“올해 아우디코리아는 네트워크 재정비와 핵심 모델 투입을 앞세워 한국 시장에서의 성장 흐름을 이어가겠다”

스티브 클로티 아우디코리아 사장은 15일 서울 강남구 아우디 도산대로 전시장에서 열린 ‘2026 신년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에서 “한국은 아우디에게 여전히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우리가 말한 것은 반드시 실행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방식으로 모든 고객 접점에서 기대에 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우디코리아는 올해 네트워크 재정비와 고객 경험 강화를 중심으로 사업 전략을 전개한다. 전국 전시장에 새로운 리테일 기준인 PSC(Progressive Showroom Concept)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서비스센터와 배터리 전문 거점인 BCC를 확대해 전동화 시대 대응 역량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전시장에서 ‘아우디 오픈 하우스’를 운영하며 고객 접점을 확대한다.

올해 핵심 모델로는 아우디를 대표하는 A6와 Q3가 전면에 나선다. 신형 A6는 PPC 플랫폼 기반의 MHEV 플러스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술을 적용해 효율성과 주행 성능을 동시에 강화했다. 특히 새로운 디지털 라이팅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진보한 운전자 보조 기능을 통해 완성도를 높였다. 3세대 Q3는 디자인과 주행 성능,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했으며 마이크로 LED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를 핵심 요소로 내세웠다.

아우디코리아는 지난해 총 16종의 신



스티브 클로티 아우디 코리아 사장이 15일 서울 강남구 아우디 도산대로 전시장에서 열린 신년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에서 ‘2026년 비전 및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아우디코리아

모델을 한국 시장에 출시하며 브랜드 역사상 가장 폭넓은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전년 대비 판매는 18.2% 성장했고, 전기차 판매는 26.6% 증가했다.

내연기관 모델인 A5와 Q5는 PPC 플랫폼을 기반으로 기술 완성도를 끌어올렸고, Q6 e-트론과 A6 e-트론은 차세대 전동화 기술과 디지털 경험의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Q4 e-트론은 지난해 3011대가 판매되며 2년 연속 독일 프리미엄 수입 전기차 단일 모델 판매 1위를 기록했다.

고객 경험 측면에서도 변화가 이어졌다. 아우디코리아는 서수원과 제주를 비롯해 부산·울산·경남 등 주요 권역에서 전시장과 서비스센터를 신규 오픈하거나 확장했다. 현재 국내 모든 아우디 서비스센터에서 전기차 수리가 가능하다. 고전압 배터리 전문 인력은 1년 만에 20% 이상 늘었고, 지난해 12월에는 ‘5+2 연장 보증 프로그램’을 출시해 장기 보유 고객의 신뢰를 강화했다.

/원관희 기자

LG, 글로벌 정책 싱크탱크 조직 재정비

고윤주 글로벌전략개발원장 선임

LG가 글로벌전략개발원장에 고윤주 LG화학 CSSO(최고지속가능전략 책임자, 전무·사진)를 선임하며 그룹의 글로벌 정책 싱크탱크 조직을 재정비했다. LG글로벌전략개발원은 LG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 경제 변화와 주요 국가들의 정책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전략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 자문 기관으로 2023년 LG경영개발원 산하에 설립됐다.

15일 LG에 따르면 고 선임 원장은 30여 년간 외교 일선에서 근무한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북미 시장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ESG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북미 외교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1968년생으로 연세대를 졸업한 후 1995년 외무고시 29회로 외교부에 입부한 뒤 주미국1등서기관, 주뉴욕영사, 북미국심의관 등을 미국 외교가를 두루 거쳤다.

트럼프 1기 시절인 2019년엔 외교부 북미국장을 지낸 뒤 2021년 주미국대사관 차석 겸 정부공사를 맡아 대미 외교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현정 기자

효성티앤씨 ‘리젠’ 환경표지 인증

효성티앤씨는 자사 재활용 폴리에스터 리젠이 국내 섬유업계 최초로 ‘환경표지 인증’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은 소비자에게 제품의 환경 정보를 제공해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기업의 친환경 제품 개발과 생산을 유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생산·소비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제도다. 그동안 환경표지 인증은 주텍

과 건설용 자재 및 설비 분야 제품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이번 리젠의 인증 획득은 단순히 친환경을 지향하는 것을 넘어, ‘자원순환성 향상’과 ‘유해물질 저감’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친환경 성능을 공식적으로 검증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인증으로 리젠은 별도의 환경성 검증 절차 없이도 공식적인 친환경 원료 제품으로 인정받아 그린워싱 우려를 해소할 수 있으며,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대상에도 포함된다.

/김민술 인턴 기자 mnskim@